<일 본>

일본, 석유화학산업 재편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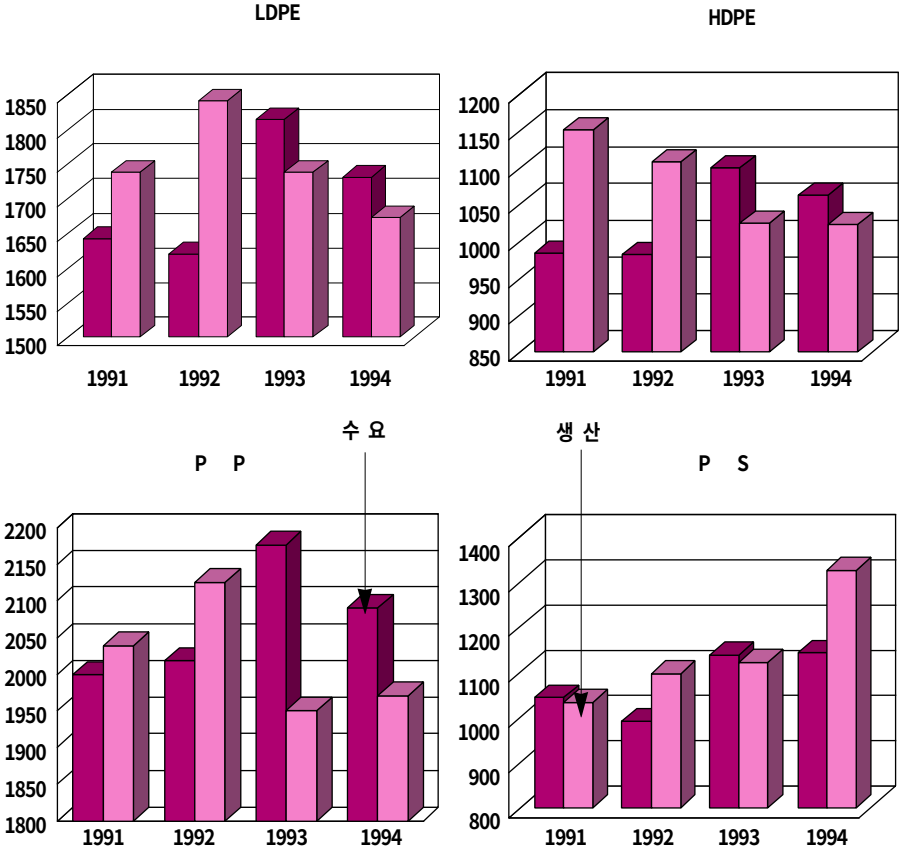
92년 일본의 LDPE 수요는 162만1000톤으로 91년대비 0.1% 소폭 감소했고, 93년 수요도 159만4000톤으로 2%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필름 수출이 활기를 보인 것에 반해 기타용도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은 7% 감소한 173만7000톤으로 낮은 수요신장에 따른 생산감축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은 엔고에 따른 영향으로 29% 감소한 21만9000톤에 머물렀다.

수출고전에 내수마저도 위축

94년 LDPE 수요는 93년과 비슷한 수준의 약보합세로 추이하고 있고, 내수는 3% 감소한 154만9000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전반적인 침체분위기로 17% 감소한 18만2000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4년5월의 생산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5만1300톤으로 소폭 신장됐다. 94년 상반기의 내수실적은 80만3600톤으로 1.3% 감소했고, 하반기는 1.4% 감소한 82만6700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92년 HDPE의 수요는 91년수준과 비슷한 98만4000톤의 실적을 보였고, 93년은 99만6000톤으로 나타났다. 발포몰딩 및 필름용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 사출몰딩, 플레이트안, 기타용 수요도 감소를 보였다. 단지 파이프용 수요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수출은 31% 감소한 10만3000톤으로 대폭 하락했고, 수입은 한국의 수출공세에 밀려 282% 큰 폭 증가한 4만톤을 기록했다.
94년 내수수요는 3% 감소한 96만3000톤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의 생산실적은 9만7200톤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하반기는 0.2% 증가한 54만8900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1】 일본의 4대수지 수급동향

(단위 : 1000M/T)



한국 밀어부치기에 대만은 반덤핑

92년 일본의 PP수요는 201만8000톤으로 91년의 199만9000톤에 비해 소폭 성장세를 보였지만 93년은 1% 감소한 199만6000톤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기침체의 영향과 자동차 내수경기의 후퇴 및 건축경기의 불황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필름용은 92년수준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고, 식품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식품용은 저조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92년 20만5000톤으로 91년의 13만8000톤에 비해 대폭 신장했으나, 93년에는 18% 감소한 18만톤으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94년은 계속되는 감소로 16만톤이 예상되고 있다.

94년은 자동차 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총 수요는 93년대비 3% 감소한 193만톤으로 내다보고 있다.

94년5월 생산실적은 3% 증가한 18만8400톤, 내수는 2% 증가한 16만3200톤인 반면 수출은 26% 감소한 1만800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대만 수출은 68.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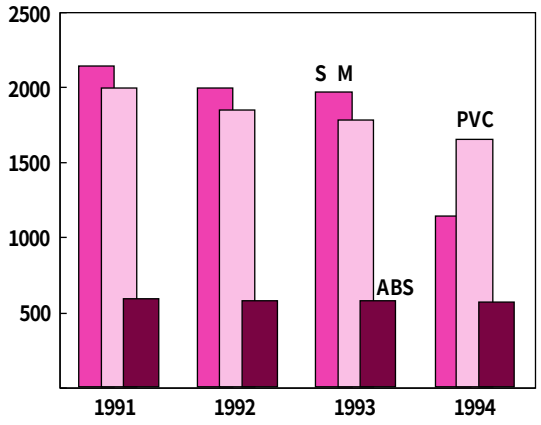
94년 상반기 내수실적은 1.2% 증가한 100만7700톤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는 93년수준과 비슷한 101만2500톤 보합세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92년 PVC 수요는 184만7000톤으로 91년 199만3000톤보다 감소했고, 93년에도 178만톤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94년 1월 4월까지의 PVC의 수출실적은 100톤을 기록했고, 수입은 7602톤으로 증가했다. 또 5월의 PVC 생산량은 15만5300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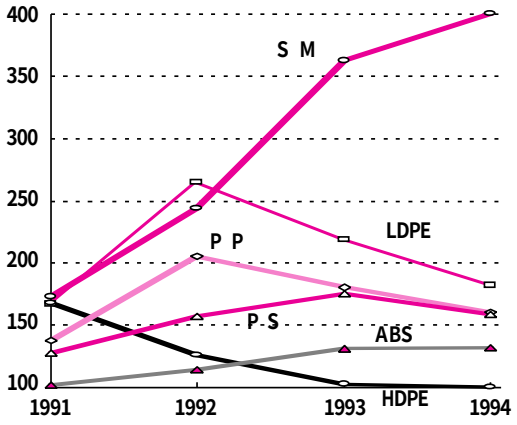
【그림2】 일본의 SM · PVC · ABS 수요동향

(단위 : 1000M/T)



【그림3】 일본의 합성수지 수출추이

(단위 : 1000M/T)



전자 부진에 폴리에틸렌 약세

일본의 PS의 수급은 91 92년은 정체감이 농후했고, 93년은 전기 · 전자부문의 불황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용도별로 보면 식품포장재용은 감소세이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오디오 및 비디오카세트 등은 대폭 감소했다.

93년 PS의 내수수요는 1/4분기 6%, 2.4분기 4%, 3/4분기 0%, 4/4분기 2%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94년 2월부터 3% 전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3년 생산은 0.2% 증가한 112만2000톤으로 생산능력이 일부 공장의 폐쇄로 감소되었으며 가동률은 85% 수준에 머물르는 약세를 보였다.

94년에는 수요가 약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출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

로 보이나 신규 생산기업들의 공급확대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93년 ABS 수요는 57만8300톤으로 92년 58만톤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용은 12% 이상 감소했으며 기타 전기·전자용 및 도구용 수요도 감소했다.
93년 수출은 13만1000톤으로 92년 11만4000톤보다 큰폭 신장했고, 중국 및 아시아국가들의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4년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ABS가 산업전반에 사용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4년 1 4월의 ABS의 수출실적은 5만1568톤이었고, 수입은 5523톤을 나타냈다. 93년 내수수요는 197만4100톤으로 92년수준에 약간 못미치는 실적을 보였고, PS용 수요는 2% 이상 증가한 반면 ABS·EPS용 수요는 5% 감소했다. 또 가전·자동차 등 공업용에 의존도가 높은 유도품일수록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93년 SM 수출은 92년 24만4000톤에 비해 대폭 신장된 36만2000톤으로 증가했으며 평균가동률은 87% 수준을 보였다.
94년 수요는 약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생산실적은 23% 증가한 23만7100톤으로 대폭 신장했고, 6월에는 1톤당 600달러까지 상승해 메이커에서는 가격인상을 꾀하고 수요자들과 교섭에 들어갔다.

<화학저널 1994/9/1>